



최봉인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은 전남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 애로 해소를 위해 서울에서 전남농산물판매 행사를 10차례 이상 개최했다.



최봉인 전 회장은 지역 출신 서울 유학생들의 보금자리인 남도학속 건립을 위해 지역 및 출향인사들과 함께 69억원을 모금, 전달했다.

“한평생 ‘고향·향우사랑’... 공적 정당한 평가를”

최봉인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말기암 투병 ‘안타까움’

향우회·지역 숙원사업 해결 ‘혼신’
재산 정리해 장학금·발전기금 기탁
“업적 되새겨 후배들 귀감 삼아야”

‘고향사랑, 나라사랑’에 한평생을 바쳐 온 최봉인(85)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현 광주전남시도민회)이 이달 초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다. 지역 차원에서 그의 고향사랑 공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9년 부인 오영희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에게 남아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해 고향과 향우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각종 장학금과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생의 마지막까지 무소유를 실천한 최 전 회장이 쓸쓸하게 사경을 헤매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인 1970년대에 가난 극복을 위해 대거 상경했던 향우들의 모인체인 향우회 결성에 참여한 이후 지난 60여 년간 재경목포시향우회장(1986년), 재경목포중·고충동문화장, 전국시군향우회장(1992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1998년) 등을 맡으



최봉인 전 회장

면서 향우회 결속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혼신의 힘을 쏟아 왔다.

최 전 회장은 향우회 조직의 전국화에 도나서, 1992년 재경전국 150개 시군향우회가 참여한 전국시군향우회 공동대표를 맡아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 및 도·농간 갈등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전남과 경북 각 시군간 합동결연을 맺어주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또 1993년 완공된 지역 출신 서울 유학생들의 보금자리인 서울 대방동 남도학속 건립사업 때 지역 및 출향인사들과 함께 69억원을 모금, 광주시와 전남도에 전달했다.

고향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도 발벗고 나섰다. 전남농민들의 농산물 판매 애로 해소를 위해 서울에서 전남농산물판매 행사를 10차례 이상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1994년에는 3월과 9월 두차례 행사를 개최해 한해에 1200억원 상당의 전남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리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98년과 1999년 수해와 태풍 때는 거

액의 수재의연금을 모아 중앙 언론사를 통해 기탁했고, 고향을 직접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1991년과 1992년 두 차례 목포 앞바다 제방붕괴 사건 때는 목포 향우들과 함께 수재의연금을 모아 목포시에 전달했고, 목포 제2항도문화관 건립 때는 기금마련 전시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1억5000만원을 목포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 무안국제공항 유치,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영산강살리기 운동, 5·18광주민중항쟁 전과와 등에도 적극 참여해 지속적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섰다.

최 전 회장은 “고향을 합하면 그것이 우리의 국토 대한민국이고 고향사람들을 모두 모으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라면서 “그러기에 고향사랑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라사랑”이라고 강조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최 전 회장의 고향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작고한 아내 고 오영희 여사의 모교인 숙명여대에 동문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한 이후 그해 재경광주전남향우장학재단과 목포중고동문 장학재단에 각각 1000만원을 출연했다.

이어 광주5·18기념재단, 전남인재육성재단, 목포문화예술진흥기금 등에 각각

1000만원씩을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8000만원의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최 전 회장은 기금 전달 당시 “인생은 모두에게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인 것 아니냐”면서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 후배들에게 되돌려주자는 의미에서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87~1996년 10년간 전남문학상후원회장을 맡아 당시 사재 3000만원을 털어 지역출신 문화예술인 19명에게 전남문학상을 수여했고,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인상’을 제정 시상해 광주·전남인의 긍지와 자존심을 높이는 등 수많은 지역출신 인사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지만 정작 본인은 단 한 차례도 수상의 영광을 안아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최 전 회장의 투병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평생 고향을 위해 봉사해온 그의 삶을 기리고 지역 및 향우 후배들이 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라도 그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최 회장님은 일생동안 오직 광주와 전남의 호남향우들에게 봉사하면서 사신 분이고, 사모

님 별세 이후에는 본인이 어려우신 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 전남인재육성재단, 광주5·18기념재단, 목포문화예술진흥기금, 목포중고동창회 등을 지원한 본인에도 지금까지 목포시장이나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으로부터 표창장 하나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최 전 회장의 고향사랑 공적에 대한 지역 차원의 평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충식 가천대 부총장(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향우회장이 돈이 나오거나 명예가 드높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외연을 넓혀가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봉사한 것은 지금까지 없는 일”이라면서 “어려운 것, 귀찮은 것을 마다하지 않고 향우와 고향문제를 해결하신 귀중한 분에 대해 후배들이 귀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회장은 목포중·고, 중앙대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목포일보 서울 정치부장으로 언론에 첫발을 내디딘 뒤, 전남일보 창간임원, 서울신문 상임고문, 김대중정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노무현정부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해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정제로
임의
한성향료